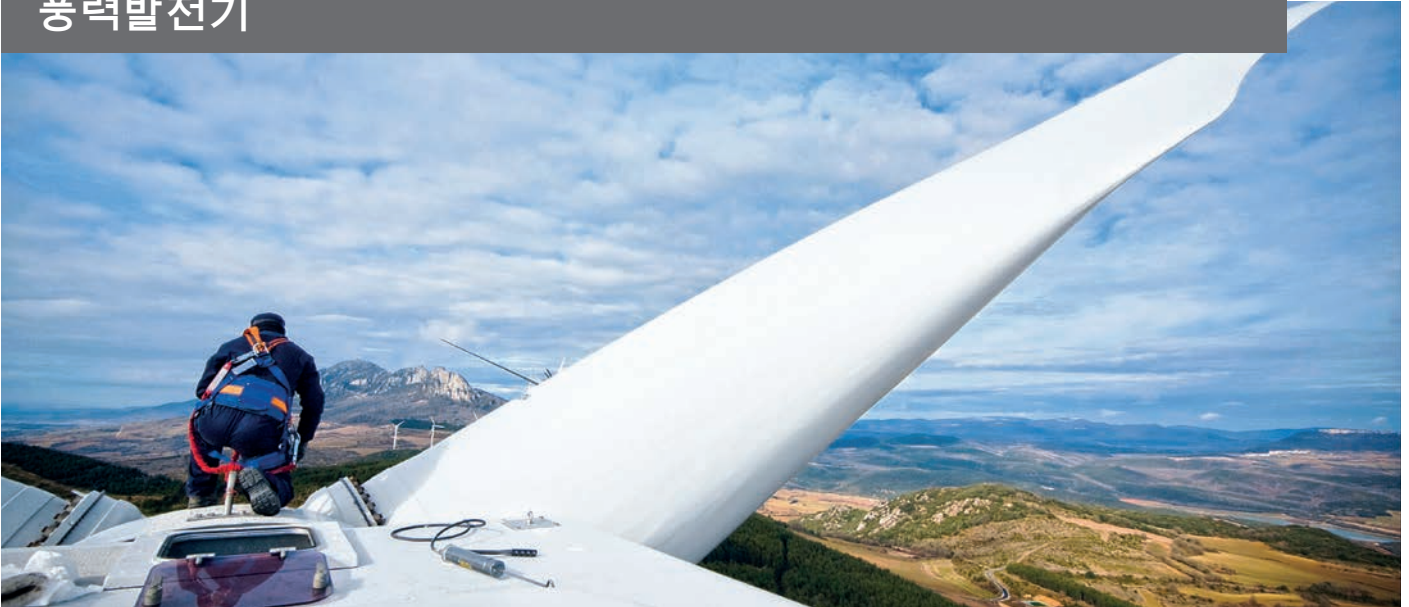


사례연구  
**풍력발전기**



**프랑스 - “바벨타워”에서의 명확한 과정 (clear course)**

4개 국어가 사용되는 높이 80m 타워에서의 작업은 BELFOR에게도 혼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구라는 것은 조정과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풍력발전소 사례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터빈 케이블에 화재가 발생하여, 스위치 캐비닛이 손상되고 이후 타워 전체가 오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ELFOR는 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작업을 분배하였습니다. 제조사는 독일의 BELFOR Relectronic 에 통보했고, 여기서 프랑스지사 동료들에게 전달되었는데, 이들은 인력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즉시’라는 용어는 힘든 상황 아래서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전문장비의 준비 및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특수훈련을 받는 준비작업만으로 3개월이 소요되었으나, 특수훈련을 마치고 투입된 프랑스 팀원들은 플랫폼 3개를 완벽히 교체했습니다.



**바벨타워 (TOWER OF BABEL)  
풍력을 활용하라!**

**국제 네트워크의 장점**

**“넓은 바다에서 대부분의 바람이 사라질 때, 가장 활기찬 고기가 잡힌다”**

매우 압박한 마감시한을 맞추기 위해 모든 팀원들이 무거운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일주일에 6일, 하루 9시간씩 일했고, 이들의 노력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4개 국어가 사용되었지만,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던 “바벨타워”는 가을이 시작될 때 재가동될 것입니다.

**이탈리아 - 그리드는 없지만, 국제 네트워크가 있다**

두 번째 사례연구는 국제 네트워크가 정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깁니다’. 2메가와트 출력의 신형 풍력 터빈을 작업할 때 정확히 그랬습니다. 기술적 결함으로 전기케이블이 전소되고 타워 전체와 기관실에 그늘음이 끼었습니다. BELFOR는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타워와 기관실 현장에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